

증인 관리 태만... 성폭행 혐의 피고인 무죄

피고인, 피해자 작성 고소장·진술조서 모두 부동의 피해자 중국으로 출국... 검찰, 재판 출석 노력 태만 법원 "피해자 작성 고소장 등 증거능력 없다" 판시

검찰이 핵심 증인의 법정 진술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성폭행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가 3일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쯤 중국인이 모여 사는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여성 B(44)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에도 겁을 먹은 피해자를 또다시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검찰·경찰에 진술한 진술 조서를 모두 부동의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통상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 또는

피고인 등 어느 한쪽이 진술 조서 등 증거로 사용될 문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술한 자를 재판에 출석 시켜 증인을 듣는 것으로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검증한다. 단 증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재판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법정에서 출석시키려 했지만 올해 3월 중국으로 되돌아간 피해자가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며 출석을 거부하자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절차를 생략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무성의한 공소 유지 태도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정 진술

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체류중이어서(체류 기간이 끝나면)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는지, 출국하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또 수사기관은 올해 1월 피고인을 기소한 후 피해자가 2개월 뒤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증거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으며(중국으로 돌아간) 피해자에 대한 소재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 신문 요청 등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삼민기자

코로나19 제주 20번째 확진자 발생

카자흐스탄서 입국한 외국인 같은 항공기 이용한 28명 격리 제주 18·19번 확진자 3일 퇴원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A씨가 지난 4일 오후 4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20대 외국인이다. 1차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입도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5시30분쯤 제주 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한 뒤 도에서 마련한 방역 차량을 이용해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로 이동했다. A씨는 3일 입도 직후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고, 4일 낮 12시쯤 이뤄진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역학조사 결과 5일 기준 A씨의 접촉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A씨가 입도 시 이용한 김포발 에어서울 RS915편 탑승객들이

다. 이들은 전원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무증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도내 방글라데시 유학생 18·19번 확진자는 3일 퇴원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무증상으로 입국 후 당일 오후 제주에 입도,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하에 재학 중인 대학에서 마련한 임시 숙소에서 자가격리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입원 당시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 없이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였고 이날 들어 2·3일 이틀간에 걸친 2회 검사 결과에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유학생인 제주 17번 확진자는 2차 검사결과에서 양성판정에 따라 퇴원이 보류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집중호우 대비 299개 저류지 안전점검

도, 지적사항 76% 조치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을 대비해 도내 전체 299개소 저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저류지 시설물 상태는 대부분 양호했으나, 저류지 바닥의 토사퇴적물과 지장물 제거가 필요한 저류지 115개소, 안내판 보수와 잠금장치 교체 등이 필요한 저류지 105

개소 등 전체 247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187건(76%)을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60건(24%)에 대한 조치는 이달 내로 완료 할 예정이다. 저류지별 구체적인 점검결과를 보면 하천 저류지는 시설물 상태, 토사 퇴적, 쓰레기 방치 등의 사항은 양호했다. 안내판 노후화와 울타리 부분 파손에 대한 4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했다. 도로변 저류지는 바닥 준설이 필요한 곳이 다수였다. 이태윤기자



그물 교체하는 어선 4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어민들이 그물을 교체하기 위해 배에 실린 그물을 하역하고 있다. 이삼민기자

낚시객 갯바위 고립사고 잇따라

해경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

최근 제주에서 낚시 중 밀물로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37분쯤 제주시 하도리 용문사 앞 갯바위에서 낚시 중이던 A(37·제주시 노형동)씨가 밀물로 갯바위에 고립됐으며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 등을 보내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병원 진료를 원하지 않아 안전계도 후 귀가조치됐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삼양동 삼양발전소 동부양식장 인근에서 낚시객 2명이 밀물에 갯바위에 고립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구조대 등을 보내 제주도민인 60대 남성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들은 한치 낚시를 위해 오후 7시쯤 갯바위에 들어갔다가 밀물이 차오르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해경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고 병원진료를 원하지 않아 귀가조치 됐다. 해경 관계자는 "육지와 떨어져 갯바위 낚시를 할 경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밀물과 썰물의 시간대를 미리 파악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애조로 달리던 25t급 대형화물차 화재

지난 4일 오후 8시2분쯤 제주시 노형동 애조로 월산사거리에서 A(44)씨가 운행 중이던 대형화물차량(25t급)에서 불이 나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화물차량 탑승석과 화물적재함 사이가 부분 소실, 내부가 전소하는 등 소방서 추산 132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플라스틱과 전



기 배선 등에 불이 붙은 점 등을 토대로 배기 계통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저소득가정 4000명 여름방학 급식 제공

제주시는 여름방학 기간중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막고 영양 개선을 위해 4000명에게 아동급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1인당 5000원 상당의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3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교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난 한달간 제주시와 읍면동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총 3970명(법적대상자 3939명, 심의대상자 31명)을 아동급식대상자로 결정하고 급식운영과 결식아동 지원방법, 급식메뉴 선정 등을 논의했다. 또 여름방학 기간 위생관리부서와 협력해 아동급식 제공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 효과
 -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 높은 저장성
 -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코코리
 - 100% 수용성 비료
 -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유통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필리핀산
 -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 양분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 알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완사바실러스
 -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 · 만감류 영농안내

-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 **양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